

# K-기업, 3D·초저전력 등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 뽐낸다

## ISE 2026

삼성전자 미래형 상업공간 비전 제시 무안경 3D '스페이셜 사이니지' 공개

LG전자 공간에 따른 솔루션 전시 통합 보안시스템 'LG 쉴드' 소개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차세대 혁신 디스플레이로 유럽 시장 공략에 나선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오는 6일(현지시간)까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유럽 최대 디스플레이 전시회 'ISE 2026'에 참가해 차세대 혁신 디스플레이와 솔루션을 대거 선보인다.

삼성전자는 '피라바르셀로나' 전시장에 1728㎡(약 522평) 규모의 전시관을 마련하고 초슬림 두께로 3D 입체감을 구현한 무안경 3D 디스플레이 '스페이셜 사이니지'를 전 세계에 공개한다.

이를 통해 신발, 의류 등 전시 제품이나 제품을 적용한 모델의 정면, 측면, 후면을 아우르는 360도 회전 영상을 실감나게 구현할 수 있다.



삼성전자가 오는 6일(현지시간)까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유럽 최대 디스플레이 전시회 'ISE 2026'에 참가해 차세대 혁신 디스플레이와 솔루션을 대거 선보인다. /삼성전자



LG전자가 ISE 2026에서 B2B 고객 맞춤형 솔루션을 대거 공개한다. LED 디스플레이를 활용한 대형 미디어 파사드로 구현된 서울의 야경. /LG전자

또 인공지능(AI) 기능이 한층 업그레이드된 디지털 사이니지 운영 솔루션 '삼성 VXT(Visual eXperience Transformation)', 리테일·기업·교육·호텔 등 다양한 비즈니스 환경에 최적화된 제품군을 폭넓게 선보인다.

전시관 입구에는 별도의 3D 안경 없이도 콘텐츠의 디테일과 3D 입체감을 표현하는 차세대 혁신 디스플레이 '스페이셜 사이니지' 3종과 초저전력 디스플레이 '얼

리 이페이퍼' 4종을 설치해 관람객들에게 미래형 상업 공간의 비전을 선보인다.

삼성전자 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 용석우 사장은 "상업 공간에서는 기기와 솔루션을 하나로 연결해 고객에게 일관되고 통합된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AI 기능이 탑재된 제품·솔루션 혁신을 통해 미래형 상업 공간을 위한 비전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LG전자는 '디스플레이 너머의 솔루션'을 주제로 1184㎡ 규모 전시관을 운영한다. 전시관은 호텔부터 관제실, 미팅룸, 학습공간, 드라이브루까지 다양한 환경을 구성하고, 해당 공간의 특성에 맞춘 LG전자의 차별화된 상업용 디스플레이 제품과 솔루션을 기업간거래(B2B) 고객에게 제시한다.

호텔처럼 꾸민 공간에서는 호텔 운영자와 호텔을 찾는 고객 모두를 위한 토털 솔루션을 전시한다. 안정적인 디스플레이

를 주제로 1184㎡ 규모 전시관을 운영한다. 전시관은 호텔부터 관제실, 미팅룸, 학습공간, 드라이브루까지 다양한 환경을 구성하고, 해당 공간의 특성에 맞춘 LG전자의 차별화된 상업용 디스플레이 제품과 솔루션을 기업간거래(B2B) 고객에게 제시한다.

레이 운영과 보안이 중요한 관제실에는 LG전자의 통합 보안시스템 'LG 쉴드'도 소개한다.

학습공간에서는 AI 기능을 담은 LG 전자칠판으로 다양한 활용 방법을 설명하고, 드라이브루 존에서는 외부 환경에 맞춰 강한 충격에도 문제없이 작동 가능한 디스플레이 솔루션을 보여준다.

LG생활건강 '더후', '파리바게뜨', '복순도가', '삼양식품' 등 다양한 분야의 K-브랜드와 협업해 전시 공간을 실제 매장처럼 구현하고 자체 상업용 디스플레이 운영·관리 통합 플랫폼 'LG 비즈니스클라우드'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솔루션도 대거 선보인다. 아울러 출시를 앞둔 초고화질 마이크로 LED 사이니지 'LG 매그니트(MAGNIT)' 신제품과 종이처럼 얇고 전력 사용량이 현저히 적은 'E-페이퍼' 등도 공개한다.

박형세 LG전자 MS사업본부장 사장은 "제품 경쟁력에 더해 차별화된 고객 가치를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솔루션 역량을 지속 강화해 상업용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선도적 입지를 다져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 K-방산, 현지생산·산학협력 등 수출모델 진화

##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노르웨이 '천무 폴패키지' 공급 계약

현대로템 폴란드 거점 유럽생산 확대

LIG넥스원 중동기업 파트너십 강화

단순 무기 수출에 머물렀던 K-방산이 현지 생산과 합작법인 설립, 산학 협력까지 아우르는 수출 모델로 진화하며 유럽과 중동 시장에서 영향력을 넓히고 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방산업체들은 납기 안정성과 운영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현지 생산·공급망 구축 전략을 전면으로 내세우며 수주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노르웨이 국방물자청(NDM A)과 다연장로켓 '천무' 16문과 유도미사일, 중합군수지원 등을 포함한 총 9억 2200만달러(약 1조3000억원) 규모의 '천무 폴패키지'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노



천무 다연장로켓.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르웨이는 당초 미국 록히드마틴의 하이마스(HIMARS)와 유럽 KNDS의 유로-풀스(EURO-PULS) 도입을 검토했지만, 빠른 납기와 현지 생산을 포함한 공급 전략을 제시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최종 선택했다.

앞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폴란드 군비청과 사거리 80km급 천무 유도미사일(CGR-080)을 공급하는 5조6000억원 규모의 3차 실행계약도 체결했다. 해당 계약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폴란드 방산기업 WB일렉트로닉스와 공동출자해 설립한 합작법인 '한화-WB 어드밴

스드 시스템(HWB)'과의 컨소시엄을 통해 성사됐다. 이에 따라 향후 폴란드 현지에서 구축될 HWB 전용 생산공장에서 생산된 CGR-080은 폴란드군에 직접 인도된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약 5조1300억원 규모의 루마니아 보병전투장갑차(IFV) 사업 수주전에도 참여하고 있다. 현지 생산과 기술 이전을 조건으로 제시했으며 보병전투장갑차 '레드백'을 현지에서 생산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대로템 역시 폴란드를 거점으로 현지 생산 전략을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 8월 체결한 K2 전차 180대 공급 2차 계약 물량 가운데 일부는 폴란드 현지 공장에서 생산돼 납품된다. 폴란드가 잔여 물량 640대를 대상으로 후속 계약을 검토 중인 가운데 이르면 올해 말 3차 계약 논의가 구체화할 것이라 관측이 나온다. 폴란드의 국내 생산 요구가 강한 만큼 향후 협상은 현지 조립·생산 비중을 둘러싼 협의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루

마니아도 전자 전력 보장을 위해 216대 규모의 추가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약 65억유로(약 11조원) 규모의 사업으로 거론되고 있다. 해당 사업에서도 현지화 전략이 수주 경쟁의 핵심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LIG넥스원은 중동 시장을 중심으로 현지 생산을 통한 수주 확대에 나서고 있다. 아랍에미리트(UAE)와 약 4조원 규모의 천공-II 계약을 체결한 데 이어, 지난해 11월 UAE 방산기업 칼리두스그룹과 합작 투자를 위한 협약을 맺었다. 양측은 차기 방공체계 공동 개발과 기술 이전, 현지 생산시설 구축 방안을 논의 중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글로벌 방산 수주 경쟁에서는 무기 성능뿐 아니라 현지 산업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고 있다"며 "국가별 여건에 맞춰 합작 구조와 생산 방식을 설계할 경우 방산 수출의 외연을 안정적으로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

## 삼성전자

美 'AHR 엑스포' 전시

'더 나은 일상의 구현' 주제

삼성전자가 북미 지역에 특화된 공조 제품과 AI 기반의 통합 기기 관리 기능을 선보인다.

삼성전자는 오는 4일(현지시간)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북미 최대 규모 공조 전시회 'AHR 엑스포'에 참가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전시회에서 삼성전자는 350㎡(약 100평) 규모의 전시 공간을 마련하고 '더 나은 일상의 구현'이라는 주제로 가정용부터 상업용 공간까지 아우르는 폭넓은 공조 제품 라인업을 공개했다.

주요 전시 제품은 ▲하이렉스 R454 B' 실외기 ▲가정용 EHS 제품 '모노 R32' 라인업 ▲대용량 시스템에어컨 'DV M S2+' ▲비스포크 AI 무풍 에어컨 등이다. /차현정 기자

# 현대모비스, 'HWD' 글로벌 생산 동맹

〈홀로그래픽 윈드실드 디스플레이〉

자이스·생고방 세큐리티 등 협력

현대모비스가 차량 전면 유리창을 초대형 디스플레이로 활용해 주행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기술이다.

현대모비스는 '홀로그래픽 윈드실드 디스플레이'(HWD)를 2029년까지 상용화하기 위해 독일 자이스·테사와 프랑스 생고방 세큐리티·퀴드 얼라이언스 등과 손잡는다고 3일 밝혔다.

HWD는 별도의 물리적 스크린 없이 차량 전면 유리창을 초대형 디스플레이로 활용해 주행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기술이다.

현대모비스는 HWD의 전체적인 시스템과 프로젝터 설계·생산을 총괄한다. 자이스는 특수필름 설계를 맡아 화면 선명도와 시인성을 극대화하고, 테사가 고기능 필름을 대량 복제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생고방 세큐리티는 필름을 윈드실드 유리라 붙이는 정밀 공정을 담당한다. /양성운 기자 ysw@

# LG이노텍, 조명 등 유럽 차시장 공략 속도

독일서 '넥슬라이드' 신제품 공개

LG이노텍이 차의 본고장 독일에서 차조명 기술을 대거 선보인다.

LG이노텍은 드라이빙 비전뉴스(DVN)가 주관하는 '제39회 라이팅 워크숍'에 참가해 차량조명 혁신 기술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LG이노텍은 워크숍 기간 동안 단독 전시부스를 마련하고, 최신 '넥슬라이드' 신제품 라인업을 선보인다. 실리콘 기반 초경량 소재를 적용해 얇고 가벼운

범퍼 및 그릴용 조명에 최적화된 '넥슬라이드 에어', 라이팅 픽셀의 크기를 세계에서 가장 작은 수준인 2mm×2mm로 줄여 해상도를 대폭 개선한 '넥슬라이드 픽셀' 등이 대표적이다.

LG이노텍은 'DVN 라이팅 워크숍' 이후 유럽 주요 OEM 고객을 대상으로 로드쇼를 연계, 유럽 차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이를 통해 오는 2030년까지 차량 조명 사업을 조 단위 사업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 한화비전

ISO·IEC 42001 인증

한화비전이 AI 경영시스템(AIMS)을 국제표준 요구사항에 따라 구축·운영하고 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

한화비전이 인공지능(AI) 시스템의 책임 있는 운영을 위한 국제표준(ISO·IEC 42001) 인증을 획득했다고 3일 밝혔다.

ISO·IEC 42001은 국제표준화기구(ISO)와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가 제정한 AI 경영시스템 국제표준이다. AI 기반 제품 또는 서비스를 개발·제공·활용하는 조직이 AI 시스템을 책임감 있고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한 관리체계와 요구사항을 수립·운영하도록 지원한다.

한화비전은 이번 인증을 바탕으로 EU 등 글로벌 규제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차현정 기자

/차현정 기자